

백과사전적아카이브

디지털인문학이추구하는지식과'자료의통섭

김 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인문정보학교실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



이 저작물(PPT)의 인용 표시 방법:
김현, "백과사전적 아카이브", 국립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학술세미나 발표 자료,
2024. 1. 23

1. 백과사전과 아카이브의 만남
2. 백과사전적 아카이브의 구현: 디지털 큐레이션
3. 백과사전적 아카이브와 미래 인문학

인문학술원 학술세미나

백과사전적 아카이브:

디지털 인문학이 추구하는 지식과 자료의 통섭

발표자 김 현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연구소장)
토론자 차영길 (경상국립대학교 박물관장)



일시 2024년 1월 23일(화) 16:00
장소 국립순천대학교 인문예술대학 1층 교수회의실
주최 국립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후원 국립대학육성사업, 국립순천대학교

디지털 인문학계에서 논의되는 '근현대 인문학의 과오에 대한 반성'

확장된 학술 활동으로서의 큐레이션

디지털 인문학자들은 큐레이션을 미래 인문학의 중심적인 특징으로 인식한다.

근대 대학이 큐레이션을 이차적 보조적 역할로 강등시키고 큐레이터를 박물관, 아카이브 및 도서관으로 추방하면서 학문에서 분리시켰던 반면, 디지털 인문학 혁명은 연구와 교육의 지형도를 근본적으로 재형성하도록 촉진한다. 디지털 인문학은 학자를 큐레이터로, 큐레이터를 학자로 재구성하고, 이로 인한 가능성과 수요의 확장을 통해 학문 활동에 다시 활기를 북돋으며 박물관, 도서관 및 아카이브의 학술적 사명을 재개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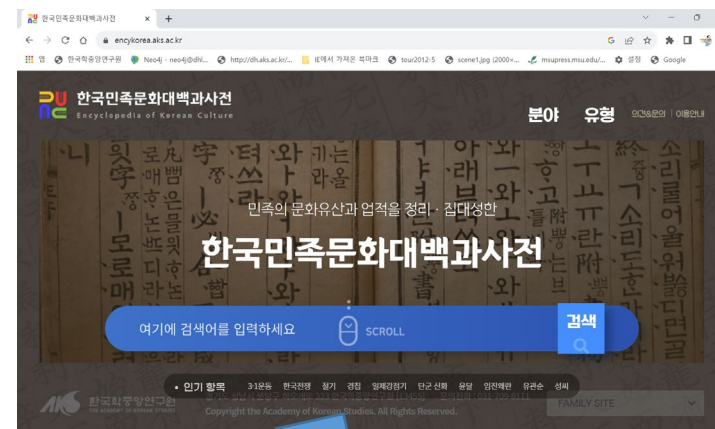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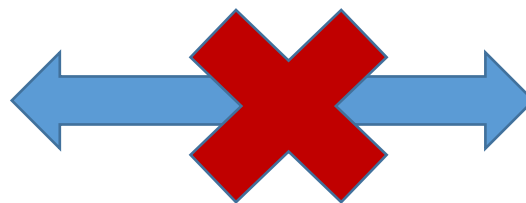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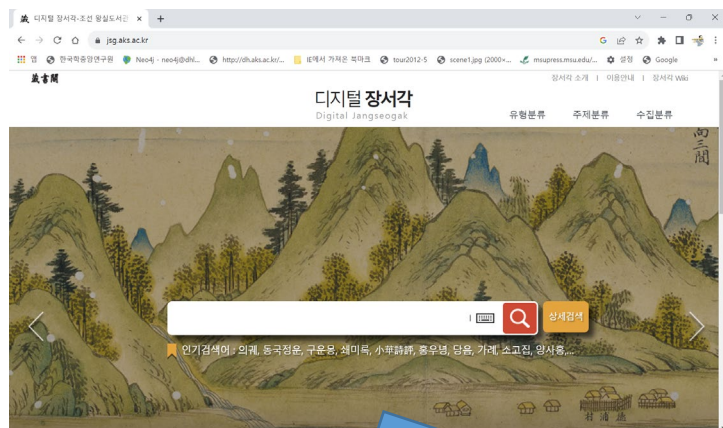
디지털화 vs 디지털 전환

❖ 전산화(Digitization) → 디지털화/정보화(Digitalization) →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 **전산화(Digitization):** 객체의 물리적인 형상이나 속성이 디지털 신호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 백과사전 텍스트 전산 입력 / 아카이브 물품의 디지털 사본 제작
- **디지털화(Digitalization):** 전산화의 결과를 활용하여 해 오던 일의 프로세스를 효율화 하는 것 📖 백과사전/아카이브 콘텐츠의 온라인 서비스 / 데이터 관리 시스템 운영 (※ 디지털화는 기존의 프로세스를 효율화할 뿐,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 기술에 의해 확장된 지평 위에서 프로세스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 아울러 그 새로운 프로세스가 작동하도록 옛것에 매이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조직과 문화를 개선하는 것 📖 백과사전과 아카이브의 구획을 넘어서는 '백과사전적 아카이브'의 구현

디지털화 vs 디지털 전환

❖ Digitalized, but not Digital Transformed



백과사전과 아카이브의 만남

❖ 백과사전적 아카이브란?

- 백과사적 아카이브(Encyclopedic Archives), 약칭 엔사이브(Encyves)
- 아카이브 컬렉션의 디지털 사본과 그 유물들의 사회적·문화적 문맥을 알려 주는 백과사전적 지식 정보를 긴밀하게 연계시키는 융합적 시스템
- (인문학 교육·연구 활동으로서의) 인문지식 디지털 큐레이션의 산출물이자, 새로운 교육과 연구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 지식 공유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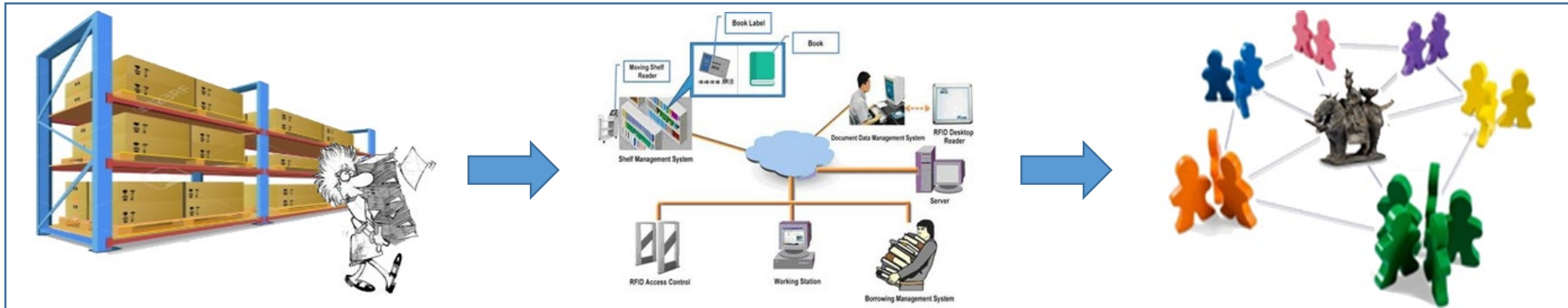
데이터 시대, '자료'와 '지식'의 새로운 관계

❖ 아카이브의 세계 vs 백과사전의 세계

- 아날로그 시대에는 박물관의 큐레이션과 학자들의 강의·저술을 다른 일로 취급할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박물관의 수장고와 전시실, 대학의 연구실과 강의실은 서로 다른 독립된 공간이었고, 그 각각의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일을 하는 전문가로 취급되었다. 지식의 성격과 내용은 유관한 것일지라도, 들여다보는 대상물이 다르면 연구방법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 일은 서로 다른 일이었다. 고객들도 그들의 분업 체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유물을 보기 위해서는 박물관으로, 문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록관으로, 그 증거들을 학술적으로 설명하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대학의 강의실로 가야 했다.
- 하지만 그 모든 지적 감성적 경험의 세계에 '디지털'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현대의 지식 고객들은 박물관의 유물이든, 아카이브의 문헌기록이든, 그것들을 가지고 역사를 탐구한 인문학자들의 논술이든, 이 모든 것들을 사이버 공간에서 디지털화된 콘텐츠로 접하는 데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다. 이 세계에서는 박물관과 강의실이 분리된 공간일 필요가 없다. 유물의 형상과 색체를 보이는 이미지 자료와 그것의 제작기법이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연구논문이 다 같이 디지털 데이터로 존재하는 곳에서 두 세계를 넘나드는 행위는 한 번의 마우스 클릭이면 족하다.

데이터 시대의 아카이브

- ❖ 데이터 시대의 아카이브: “아카이브의 정보화”에서 “디지털 아카이브”로
 - 전통적인 아카이브의 임무는 가치 있는 실물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 오늘날에는 그 실물 자료의 '활용성'을 증대시키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
 - 아카이브의 정보화: 실물을 소장하고 관리하는 일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정보기술의 활용을 모색 → 자료의 수집, 정리, 전시, 대출 등의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 디지털 아카이브: 디지털로 소통하는 세계에서 의미있게 기능하는 아카이브 → 소장하고 있는 '실물'의 관리뿐 아니라 그 실물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는 '지식'을 함께 다루어야 하는 과제가 대두.
 - 아카이브의 실물 자료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 세상 사람들의 다양한 관심사에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밝히는 노력 필요.



데이터 시대의 백과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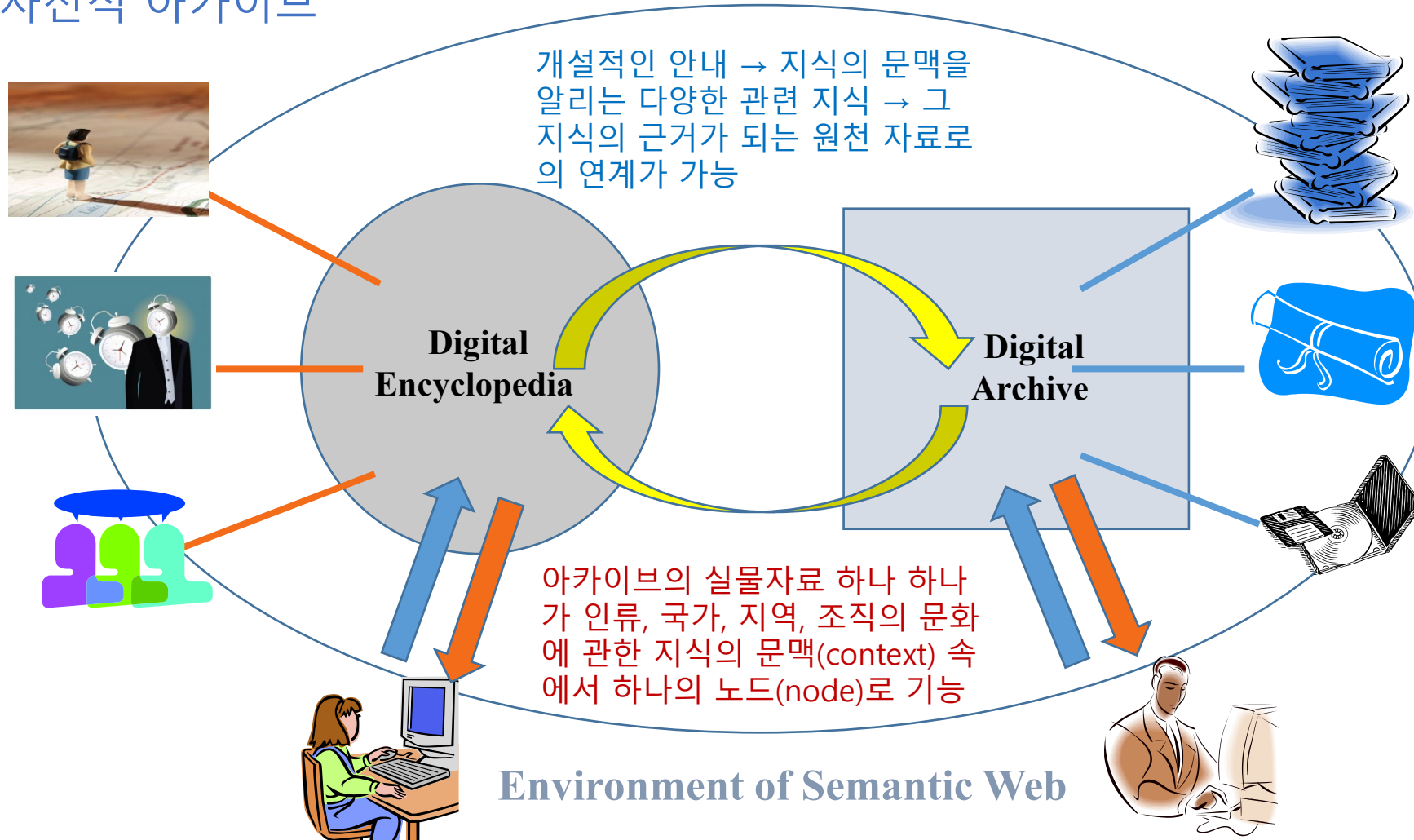
❖ 데이터 시대의 백과사전: “백과사전의 디지털 서비스”에서 “디지털 백과사전”으로

- 아날로그 시대에 백과사전은 대중들이 분야별 전문지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의 역할을 담당.
- 오늘날 인터넷상에 구현된 월드와이드웹이 종래의 '백과사전'의 역할을 대신.
 - 백과사전의 디지털 서비스: 종래의 인쇄물 백과사전 콘텐츠를 디지털 미디어 상에서 제공하는 것. 대체로 웹 포털의 검색 서비스를 통해 이용.
 - 웹 포털의 검색 서비스: 인쇄물 백과사전 콘텐츠를 비롯한 다양한 지식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기능. → 망라적인 정보의 취득이 가능하지만, 검색 결과가 망라적일수록 유용한 정보를 찾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 수반
 - 디지털 백과사전: 인쇄물 백과사전을 디지털 미디어 상에서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다, 디지털로 소통하는 세계에서 의미있게 기능하는 백과사전적 데이터 서비스를 의미
- 데이터 시대의 백과사전은 시맨틱 웹 기술을 기반으로, 유관한 지식의 조각들이 다양한 방향으로 지식의 문맥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것: 개설적인 안내' 기능을 넘어서, → '보다 전문적인 지식' → '그 지식의 근거가 되는 원천 자료'로의 연계가 가능.



백과사전 + 아카이브 = 백과사전적 아카이브

❖ 백과사전적 아카이브



백과사전적 아카이브가 추구하는 것

- ✓ 아날로그의 세계에서 백과사전과 아카이브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했었습니다.
- ✓ 하지만 이제 그것이 모두 디지털 세계에 있고, 데이터의 형태로 존재한다면, 그 두 가지는 더 이상 별개의 것이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 한 번의 클릭으로 두 세계를 오갈 수 있는 세계에서 **백과사전적 아카이브**가 추구하는 것:

①	'지식'과 '자료'를 넘나드는 융합 콘텐츠	지식의 사실적 증거(문화유적, 박물관 유물, 문헌기록, 현장조사 기록 등)와 그 증거에서 파생한 이론과 해설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게 하는 융합 콘텐츠
②	분과학문의 경계를 넘어서는 통섭적 지식 네트워크	분과학문적 전문지식의 내용들이 그것이 다룬 사실과 문맥의 연관성에 따라 다방면으로 이어지고 확장될 수 있는 다학문적 지식의 네트워크
③	가상현실에서 지식의 현장을 느끼는 감성적 체험 공간	탐구의 대상과 관련이 있는 현장의 장소감을 공유하고, 그와 관련이 있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가상현실 기반의 하이퍼미디어 콘텐츠.
④	집단 지성의 기여로 확장되는 개방적 데이터	디지털 자원을 접하는 지식의 소비자가 곧바로 자원에 관한 새로운 지식의 생산자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개방적인 소통 및 재이용가능(reusable) 디지털 자원

1. 백과사전과 아카이브의 만남
2. 백과사전적 아카이브의 구현: 디지털 큐레이션
3. 백과사전적 아카이브와 미래 인문학

인문학술원 학술세미나

백과사전적 아카이브:

디지털 인문학이 추구하는 지식과 자료의 통섭

발표자 김 현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연구소장)
토론자 차영길 (경상국립대학교 박물관장)



일시 2024년 1월 23일(화) 16:00
장소 국립순천대학교 인문예술대학 1층 교수회의실
주최 국립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후원 국립대학육성사업, 국립순천대학교

백과사전적 아카이브의 구현 방법

❖ 백과사전적 아카이브의 구현

- 백과사전적 아카이브의 구현은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우선적인 관심을 갖는) 특정한 주제 영역 안에서 분산된 자료와 지식정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지식 요소를 발굴하고, 그 요소들 사이의 의미 맥락을 데이터화 하는 “디지털 큐레이션”에서 시작

❖ 백과사전적 아카이브 구현 위한 “디지털 큐레이션” 수행 방법

- 전통적인 인문학 공부와 내용적으로 상응하는 스몰 데이터(Small Data)의 편찬
- 이것이 다수의 협업 공간에서 빅 데이터(Big Data)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 모델(온톨로지, Ontology)의 설계
- 데이터로 전환된 인문지식의 정확성과 명시성을 검증하는 데이터 시각화
- 학술적 이론과 아카이브의 유물, 현장의 활동을 하나의 가상 공간에서 융합하고 감성적으로 체험하게 할 수 있는 하이퍼미디어 콘텐츠(※메타버스, metaverse) 편찬

디지털 큐레이션에 의한 백과사전적 아카이브의 구현 사례

❖ 문화재청의 “한양도성 타임머신” 사업 (2020~2022)

- 정부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과제로 문화재청에서 수행하는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개발 사업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2019. 9. 17. 정부합동부처)

1. 정책금융 확충으로 혁신기업의 도약 지원
2. 선도형 실감콘텐츠 육성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
3. 신한류로 연관산업의 성장 견인

- 사업 기간: 2020~2022 (3년간)
- 사업 예산: 연간 90억 원(2020년 기준)
- 사업 내용: 한양도성 권역 내 600년 조선 문화유산의 '실감 콘텐츠' 제작을 위한 디지털 어셋 개발 및 지식정보 자원 개발 (**문화유산 실물 3D 모델링 +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 “한양도성 600년 문화유산을 정밀실측·고증·재현 등 모델링을 통해 3D 데이터화,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플랫폼 구축, 이동통신사·포털·게임사 등과 협력하여 AI 관광가이드·VR·AR·게임 제작 등 활용”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2019))

※ 콘텐츠 제작 대상 권역:

- . 2020년: 경복궁, 광화문, 사직단, 종친부, 육조거리 등
- . 2021년: 덕수궁, 환구단, 정동거리, 서울역, 송례문, 돈의문 등
- . 2022년: 창덕궁, 창경궁, 종묘, 흥인지문 등

한양도성타임머신빅데이터편찬연구

❖ 한양도성 타임머신 빅데이터 편찬연구

- 한양도성 타임머신 사업의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과제

'한양도성 타임머신' 사업을 통해 3D 모델로 제작되는 고건축물과 관련이 있는 역사 자료를 중심으로 조선 및 대한제국기의 왕실문화와 외교관계, 도시문화 변화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 정보를 광범위하게 조사·추출하여 데이터화 하고, 데이터 요소 상호간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대상 자료의 내용을 분석·응용·확장할 수 있는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데이터 아카이브를 구현.

- 과제 수행 기관: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

- 연구 인력 구성: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연구원 , 한국학(역사학, 문화인류학, 민속학, 고전번역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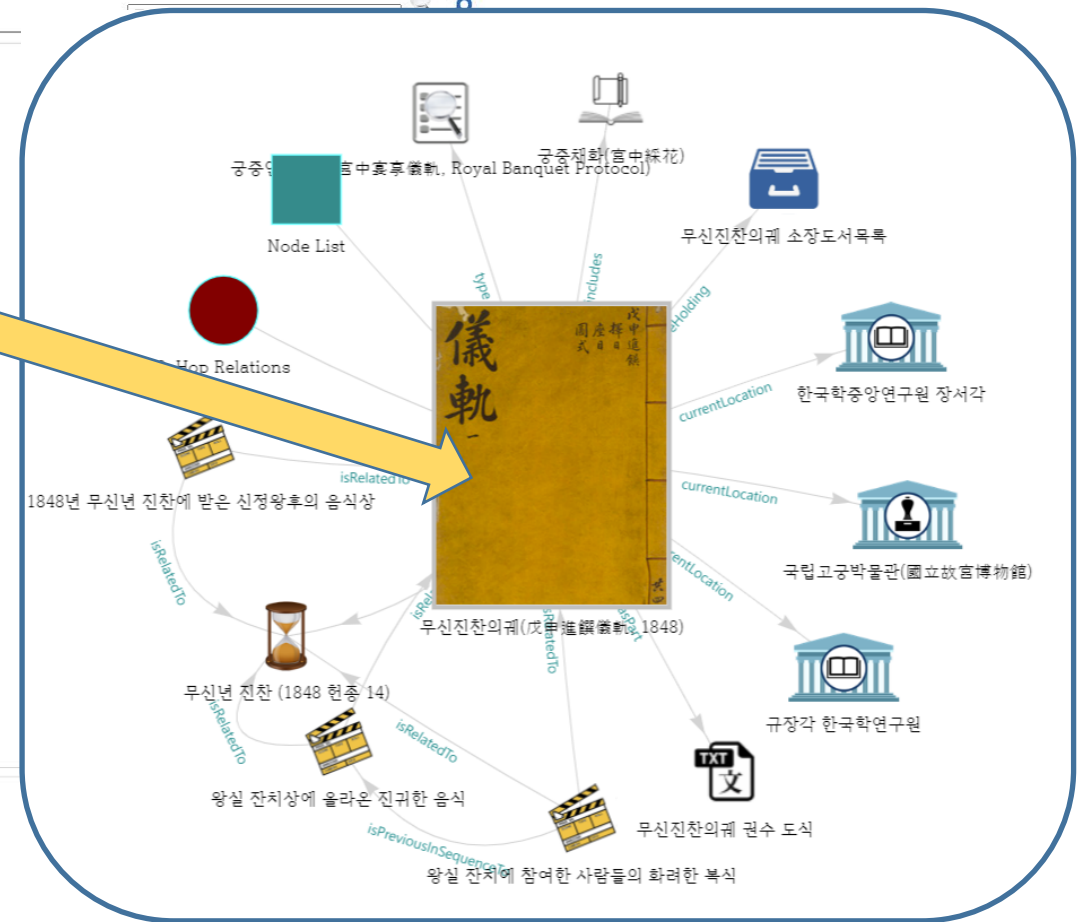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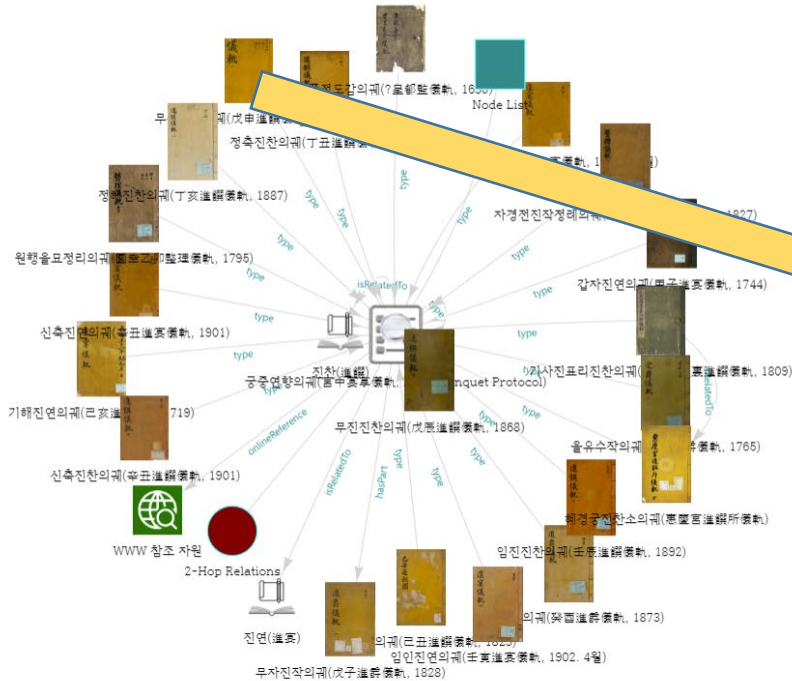
- 인문정보학 박사 및 대학원생 36 명 (2022년 기준)



데이터아카이브구현예시: 문헌자료아카이브

❖ 조선왕실 궁중연향 의궤 ⇒ 무신진찬의궤(1848)

Semantic N/W Data  Retrieve & Visualize



데이터아카이브구현예사: 문헌자료아카이브

❖ 무신진찬의궤(1848) ⇒ Archive Holdings ⇒ 소장 자료 서지사항

한양도성 타임머신 위키: 무신진찬의궤

디지털 장서각
Digital Library of Korea (Angseogak)

유형분류 주제분류 수집분류

자료분류

[무신]진찬의궤([戊申]進饌儀軌)

자료명	[무신]진찬의궤([戊申]進饌儀軌)	저자	진연도감(進宴都監) 편(編)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의궤정(조선)(儀軌廳(朝鮮)) 찬(撰)
청구기호	K2-2874	MF번호	MF35-547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進饌進宴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J)
서지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원문텍스트	디지털아카이브	이미지	장서각통합뷰어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PDF

· 원문이미지

무신진찬의궤 소장도서목록

- 진찬의궤(進饌儀軌) K2-2874
- 무신진찬의궤(戊申進饌儀軌, 1848)
- 규장각 ≡ 진찬의궤(奎14516)
- 무신진찬의궤(戊申進饌儀軌, 1848)
- 규장각 ≡ 진찬의궤(가람古642.4-J562m-v.1-3)

2. 백과사전적 아카이브의 구현: 디지털 큐레이션

데이터아카이브구현 예사: 문헌자료아카이브

❖ 소장 자료 서지사항 ⇒ 원문 텍스트 / 원문 이미지

The image displays a digital archive interface for the '진전 의궤' (Jinjeon Uigwe). The main interface shows a search result for '[무신]진전의궤(戊申進饌儀軌)'. The search result table includes the following information:

자료명	[무신]진전의궤(戊申進饌儀軌)	진연도감(進宴都監) 편(編)
자료명(이칭)		의궤정(조선)(儀軌廳(朝鮮)) 잔(撰)
청구번호	K2-2874	MF번호 MF35-547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
서지	장서각 장서각기	해제
원문텍스트	디지털아카이브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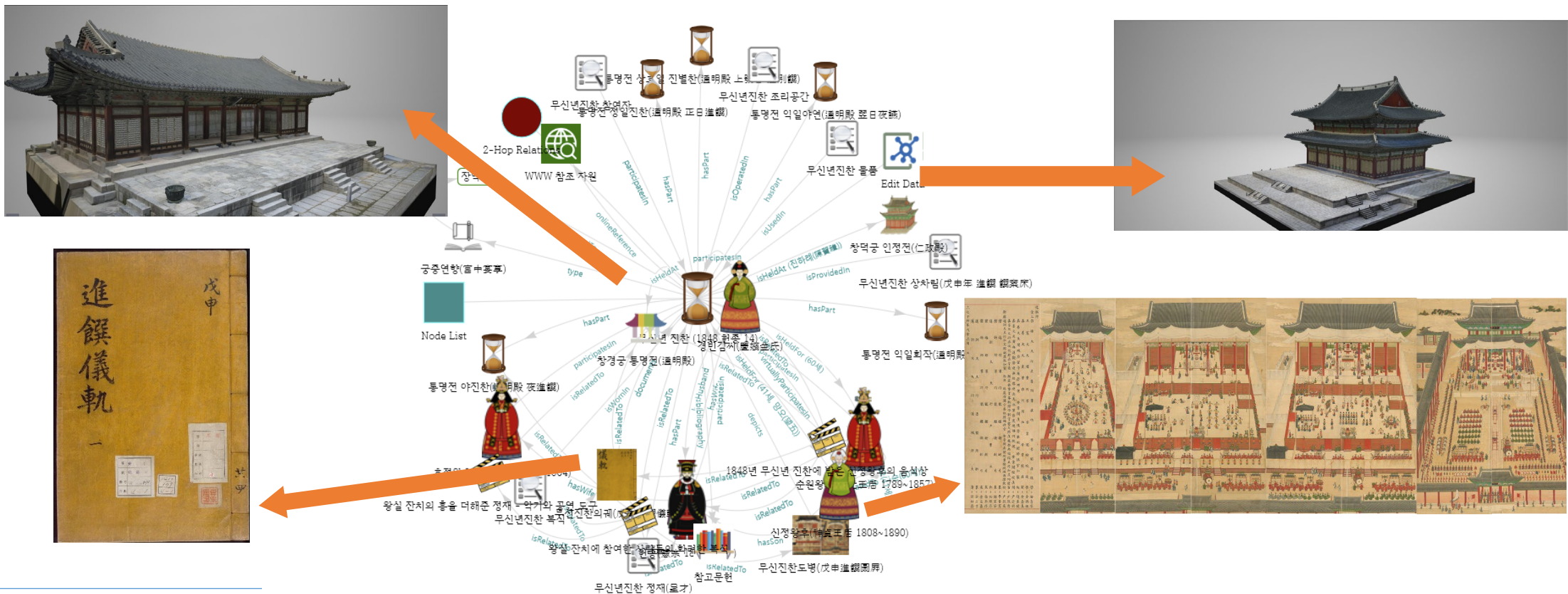
The detailed view of the document shows a table of contents (목차보기) and a thumbnail gallery. The table of contents includes the following items:

- 021
- 022
- 023
- 024
- 025
- 026
- 027 綵花園
- 028
- 029
- 030
- 031
- 032
- 033
- 034
- 035
- 036 樂器圖
- 037
- 038
- 039
- 040
- 041

The thumbnail gallery at the bottom shows a series of document pages, with the current page highlighted.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the text of the document, including the title '擇日' and a list of dates and times for various ceremonies, such as '大王大妃殿內進饌正日 三月十七日卯時 通明殿設行'.

데이터아카이브구현예사: 시맨틱데이터아카이브

❖ 조선왕실 궁중연향 ⇒ 무신년진찬 ⇒ 행사/장소/문헌기록



* 1848년(무신년), 한양의 창경궁에서 헌종의 할머니 순원왕후(純元王后, 순조비, 1834-1849)와 어머니 신정왕후(神貞王后, 효명세자빈, 1789-1857)의 장수를 기원하는 잔치가 열렸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선왕실 의궤(『戊申進饌儀軌』)에 기록되어 있고, 잔치의 장면들은 병풍 그림(「戊申進饌圖屏」)에 묘사되었다.

데이터아카이브구현예사: 시맨틱데이터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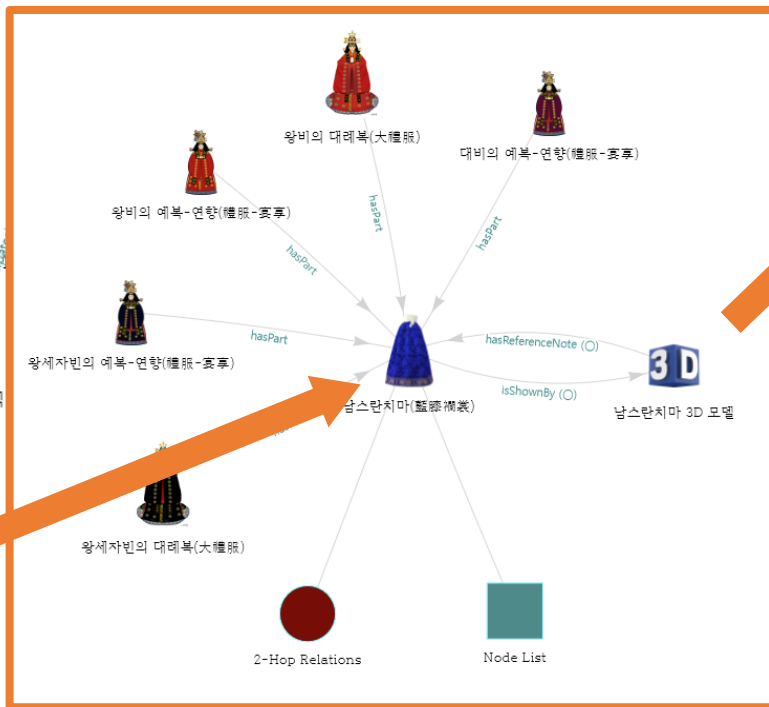
❖ 무신년진찬 ⇒ 참여자의 인맥



Semantic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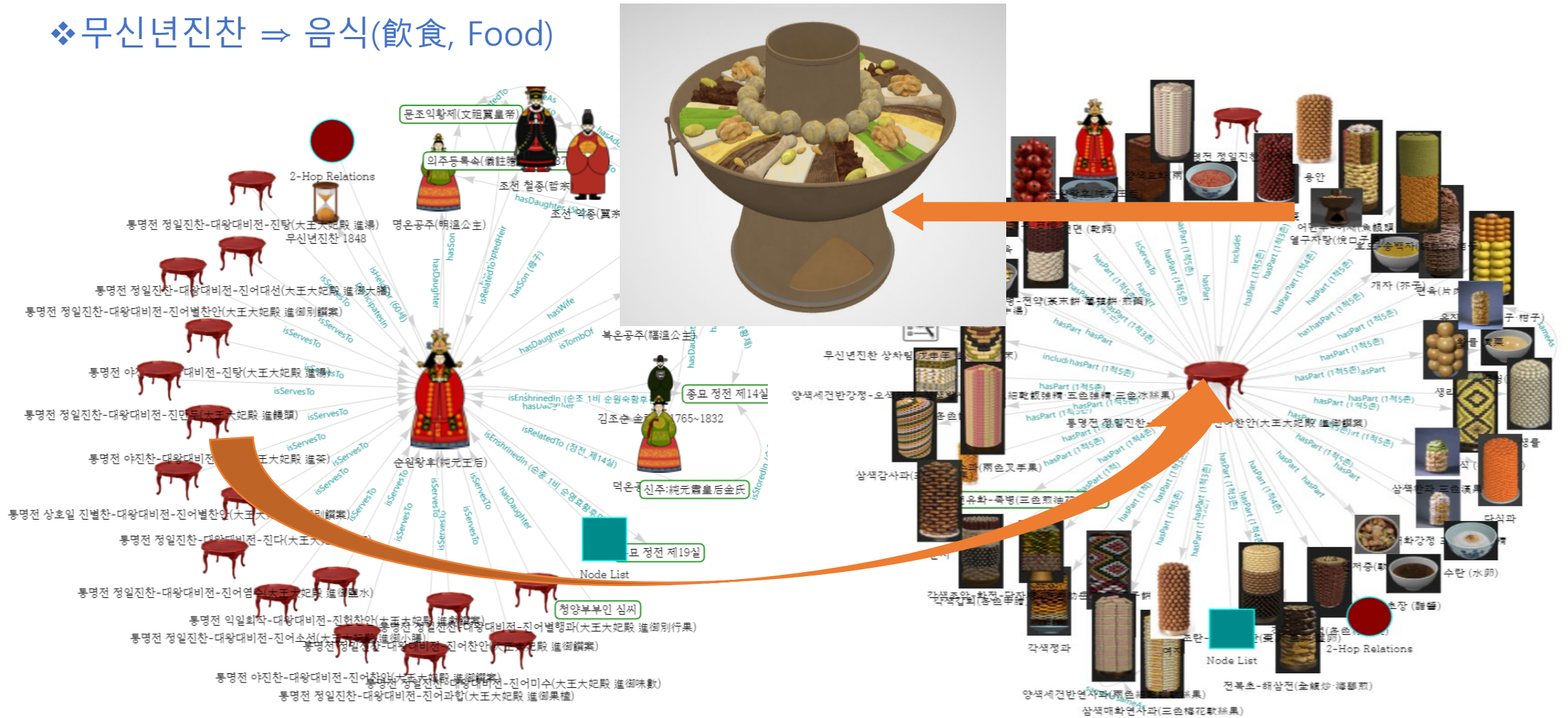
데이터아카이브구현예사: 시맨틱데이터아카이브

❖ 무신년진찬 ⇒ 복식(服飾, Clothing)



데이터아카이브구현예사: 시맨틱데이터아카이브

❖ 무신년진찬 ⇒ 음식(飲食, Food)



온톨로지Ontology

- 데이터 아카이브의 편찬 과정에서 연구자 개개인은 관심에 따라 특정 분야에 대해 조사/연구합니다.
- 그러나 그들이 만든 디지털 데이터는 함께 연결되어 종합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화된 데이터는 대상세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합니다.
- 이것은 연구진이 미리 온톨로지를 정의하고 이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 한양도성 타임머신 데이터 큐레이션에 적용한 온톨로지 스키마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에서 2016년에 처음 제정하고, 매년 확장해 오고 있는 EKC(Encyves of Korean Culture)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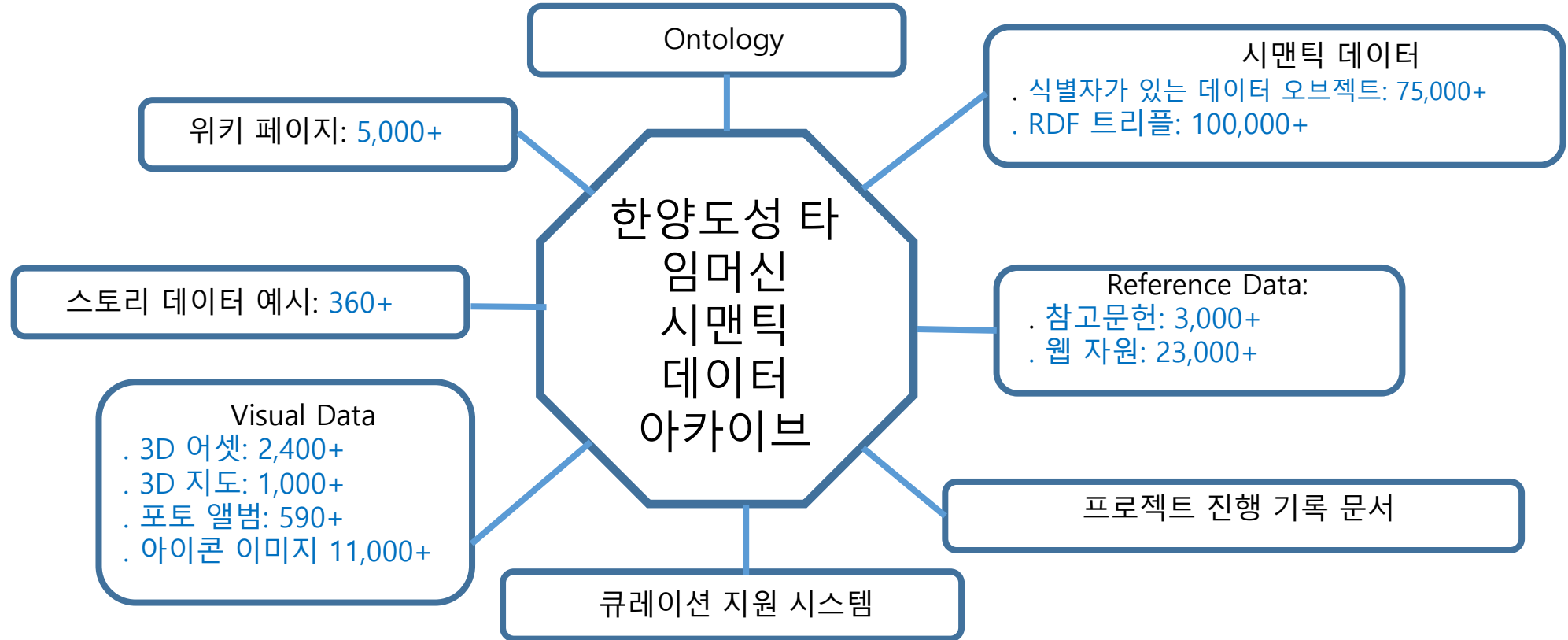
[Class Design in the EKC Data Model v. 2022](#)



[Object Properties in the EKC Data Model v. 2022](#)

[†] 온톨로지란 정보화의 대상이 되는 세계를 전자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한 데이터 기술 체계.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정보화의 틀이다. 온톨로지일 수 있겠지만, 대상 자원을 ‘클래스’(class)로 범주화하고, 각각의 클래스에 속하는 개체(individuals)들이 공통의 ‘속성’(attribute)을 갖도록 하고, 그 개체들이 다른 개체들과 맺는 ‘관계’(relation)를 명시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온톨로지 설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김현 외, 『디지털 인문학 입문』, 2016, HUEBooks, p. 164)

한양도성타임머신데이터아카이브협업공간



<http://dh.aks.ac.kr/hanyang2/wiki>

1. 백과사전과 아카이브의 만남
2. 백과사전적 아카이브의 구현: 디지털 큐레이션
3. 백과사전적 아카이브와 미래 인문학

인문학술원 학술세미나

백과사전적 아카이브:

디지털 인문학이 추구하는 지식과 자료의 통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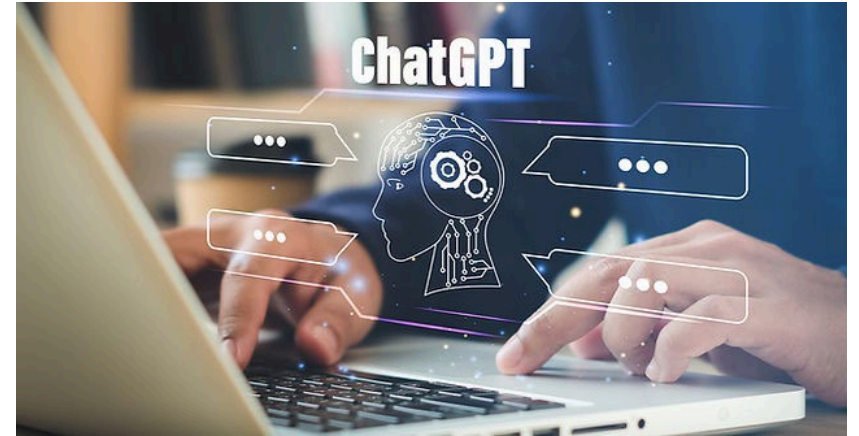
발표자 김 현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연구소장)
토론자 차영길 (경상국립대학교 박물관장)



일시 2024년 1월 23일(화) 16:00
장소 국립순천대학교 인문예술대학 1층 교수회의실
주최 국립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후원 국립대학육성사업, 국립순천대학교

인공지능과 동행하는 '미래 인문학'



- 2022년말 세상을 놀라게 하고, 이제 더욱 고도화된 기능을 과시하는 'Chat GPT' 는 가까운 미래에 인문학의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이 교육과 연구의 동반자가 될 가능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 인공지능은 이미 방대한 양의 인문학 텍스트를 학습하였고, 그 내용과 관련한 인간의 질문에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 우리는 인공지능의 박식함과 말주변에 놀라면서, 한 편으로 그 대답 속의 모호성과 부정확한 오류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Chat GPT와의 대화



논어의 “子曰學而時習之, 不亦說乎!”에 대해 조선의 유학자 다산 정약용은 “學所以知也. 習所以行也. 後世之學, 學而不習, 所以無可悅也.” (정약용(丁若鏞), 《논어고금주(論語古今註)》) 라고 풀이하셨습니다. 이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정약용의 주장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논어의 구절 “子曰學而時習之, 不亦說乎!”는 한국어로 “공자가 말씀하셨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그것이 기쁘지 않겠는가!'”로 번역됩니다. 이는 배움의 중요성과 배운 것을 지속적으로 연습하며 익히는 것의 기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조선의 유학자 다산 정약용은 이 구절에 대해 “學所以知也. 習所以行也. 後世之學, 學而不習, 所以無可悅也.”라고 풀이하셨습니다. 이는 한국어로 “배움은 앎을 위한 것이고, 연습은 행하기 위한 것이다. 후세의 학문은 배우기만 하고 연습하지 않음으로써 기쁨이 없게 되었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주장의 핵심은 배움과 실천의 중요한 연결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실제 생활에서 연습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그는 후세의 학자들이 이 연습의 부분을 소홀히 하여, 진정한 학문의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학문이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그 지식을 삶에 적용하여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Chat GPT와의 대화



You

조선왕실의 인물 순원왕후와 신정왕후의 관계에 대해 알려 주세요.



순원왕후(順元王后, 1555-1637)와 신정왕후(神貞王后, 1546-1592)는 조선시대의 왕실 인물들로, 두 사람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였습니다. 순원왕후는 선조의 두 번째 왕비입니다. 그녀의 본명은 김씨(金氏)이며, 인종의 딸입니다. 순원왕후는 선조와의 결혼을 통해 왕비가 되었고, 나중에 선조가 사망한 후 왕대비가 되었습니다. 신정왕후는 선조의 첫 번째 왕비로, 본명은 류씨(柳氏)입니다. 신정왕후는 선조와의 결혼을 통해 조선의 왕비가 되었으나,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선조와 함께 의주로 피난 가던 중 사망했습니다. 이 두 인물은 조선 중기 왕실의 중요한 인물들로, 특히 순원왕후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어려운 시기에 왕실과 나라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신정왕후는 선조와의 결혼 생활 동안 여러 차례의 정치적 혼란과 난국을 겪었으며, 특히 임진왜란의 발발과 그로 인한 피난 중에 사망함으로써 조선 왕실의 역사에서 비극적인 인물로 기억됩니다.



3. 백과사전적 아카이브와 미래 인문학



K-Heritage Interpreter 한양도성 타임머신 시맨틱 데이터를 학습한 Chat GPT

ChatGPT

K-Heritage Interpreter

Explore

Yesterday

Korean Heritage Q&A Ontology

Royal Feast of 1848

Key Figures in 1848

Korean Heritage Interpreter Welc

Previous 7 Days

Joseon Royal Feast Locations

Royal Feast Participants in 1848

Royal Feast in 1848

Royal Feast in 1848: Participants

User Request: Summarize convers

Hyeon Kim

K-Heritage Interpreter ▾

K-Heritage Interpreter

Korean history expert with in-depth insights based on 'MusinJinchan Ontology'

By KIM HYEON

Tell me about the Royal Feast of 1848.

What are key places of the Royal Feast of 1848.

Who were key figures in the Royal Feast of 1848.

What are key documents telling about Royal Feast of 1...

Message K-Heritage Interpreter...

ChatGPT can make mistakes. Consider checking important information.



K-Heritage Interpreter

 You

무신진찬 온톨로지를 참고하여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1. 1848년 왕실의 잔치에 실제로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K-Heritage Interpreter

무신진찬 온톨로지에 따르면, 1848년 왕실의 잔치에 실제로 참여한 주요 인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원왕후 (Queen Sunwon) - 순조의 왕비이자 헌종의 할머니로서, 왕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잔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 헌종 (King Heonjong) - 잔치가 열린 당시 조선의 군주였으며, 잔치의 중심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 효정왕후 (Queen Hyojeong) - 헌종의 왕비로서, 그녀의 참여는 왕실의 중요한 일부였을 것입니다.
- 경빈 김씨 (Lady Gyeongbin Kim) - 헌종의 후궁으로서, 그녀의 참여는 조선 왕실의 사회적 구조와 정치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인물들은 조선 왕조 왕실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1848년 왕실의 잔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참여는 당시 사회 및 정치적 맥락에서 잔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K-Heritage Interpreter



You

무신진찬 온톨로지를 참고하여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2. 신정왕후는 1848년 왕실의 잔치에 어떻게 참여하였습니까?



K-Heritage Interpreter

신정왕후는 1848년 왕실의 잔치에 '가상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무신진찬 온톨로지에 따르면, 그녀는 실제로 행사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감과 영향력은 인정받고 존중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상적 참여는 왕실 내에서 그녀의 중요성과 지위를 나타내며, 신체적으로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실 행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역사적인 왕실 행사에서 이러한 가상적 참여 방식은 특히 중요한 지위를 가진 인물들이 여러 이유로 직접 참석하지 못했을 때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신정왕후의 가상적 참여는 당시 조선 왕실의 사회적, 정치적 역학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K-Heritage Interpreter



You

3. '1848년 왕실의 잔치'를 기록하거나 묘사한 역사적 기록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4. 그 역사적 기록물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아카이브를 알려주세요?



K-Heritage Interpreter

'1848년 왕실의 잔치'를 기록하거나 묘사한 역사적 기록물로는 무신진찬 온톨로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무신진찬의궤:1848 (Book of Royal Protocols: 1848) - 이 기록물은 1848년 왕실의 잔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잔치의 절차, 의식, 그리고 여러 측면들에 대한 기록을 포함하고 있어, 이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제공합니다.
- 무신진찬도병 (Scroll Paintings on the Royal Feast 1848) - 이 스크롤 그림들은 잔치의 시각적 묘사를 제공합니다. 이 시기의 스크롤 그림들은 주요 행사들을 자세하고 예술적인 형태로 포착하여, 잔치의 과정과 내용을 시각적으로 전달합니다.

이러한 기록물들은 1848년 왕실의 잔치에 대한 풍부하고 다면적인 시각을 제공하며, 텍스트 기술과 시각적 표현을 결합하여 조선 시대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신정왕후는 '1848년 왕실의 잔치'와 관련된 역사적 기록물들은 다음과 같은 아카이브에서 보관되고 있습니다. 무신진찬 온톨로지에 따르면:

- 국립고궁박물관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 이 박물관은 '무신진찬의궤: 1848'을 포함한 1848년 왕실의 잔치와 관련된 주요 문서와 유물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GyuJanggak Archives) - 한국 역사 문서의 광범위한 컬렉션으로 알려진 규장각은 무신진찬과 관련된 문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 장서각 (Jangseogak Archives) - 이 아카이브 또한 1848년 왕실의 잔치와 관련된 역사적 문서를 포함하여 중요한 역사적 문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 이 박물관은 '무신진찬도병'을 포함한 중요한 문화 유물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아카이브들은 1848년 왕실의 잔치와 관련된 역사적 기록을 보존하고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이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K-Heritage Interpreter



You

5. 순원왕후(Queen Sunwon)와 신정왕후(Queen Sinjeong)의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2 단계 관계까지 체크해서 직접 및 간접적인 관계를 알려주세요.



K-Heritage Interpreter

순원왕후(Queen Sunwon)와 신정왕후(Queen Sinjeong) 사이에는 직접적인 가족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조선 순조(King Sunjo):

순조는 순원왕후(Queen Sunwon)와 결혼하였으며, 순원왕후는 그의 왕비였습니다.
순조와 순원왕후 사이에는 아들 효명세자(Crown Prince Hyomyeong)가 있었습니다.

효명세자(Crown Prince Hyomyeong):

효명세자는 신정왕후(Queen Sinjeong)와 결혼하였습니다.
효명세자와 신정왕후 사이에는 아들 헌종(King Heonjong)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순원왕후는 신정왕후의 시어머니이며, 신정왕후는 순원왕후의 며느리라는 간접적인 가족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 관계는 효명세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효명세자는 순원왕후의 아들이자 신정왕후의 남편입니다.



K-Heritage Interpre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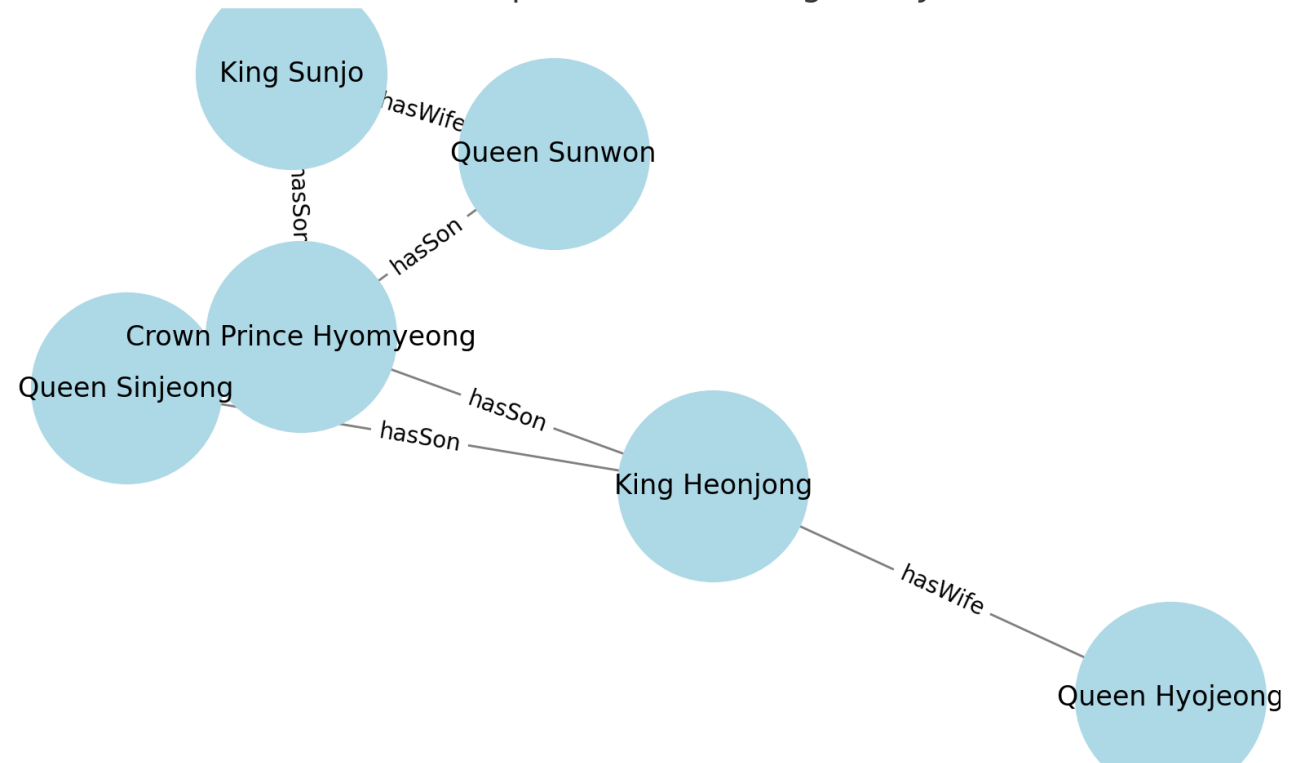
You

6. Could you display the familial relationships of the historic figures in the Musinjinchan Ontology in a network grap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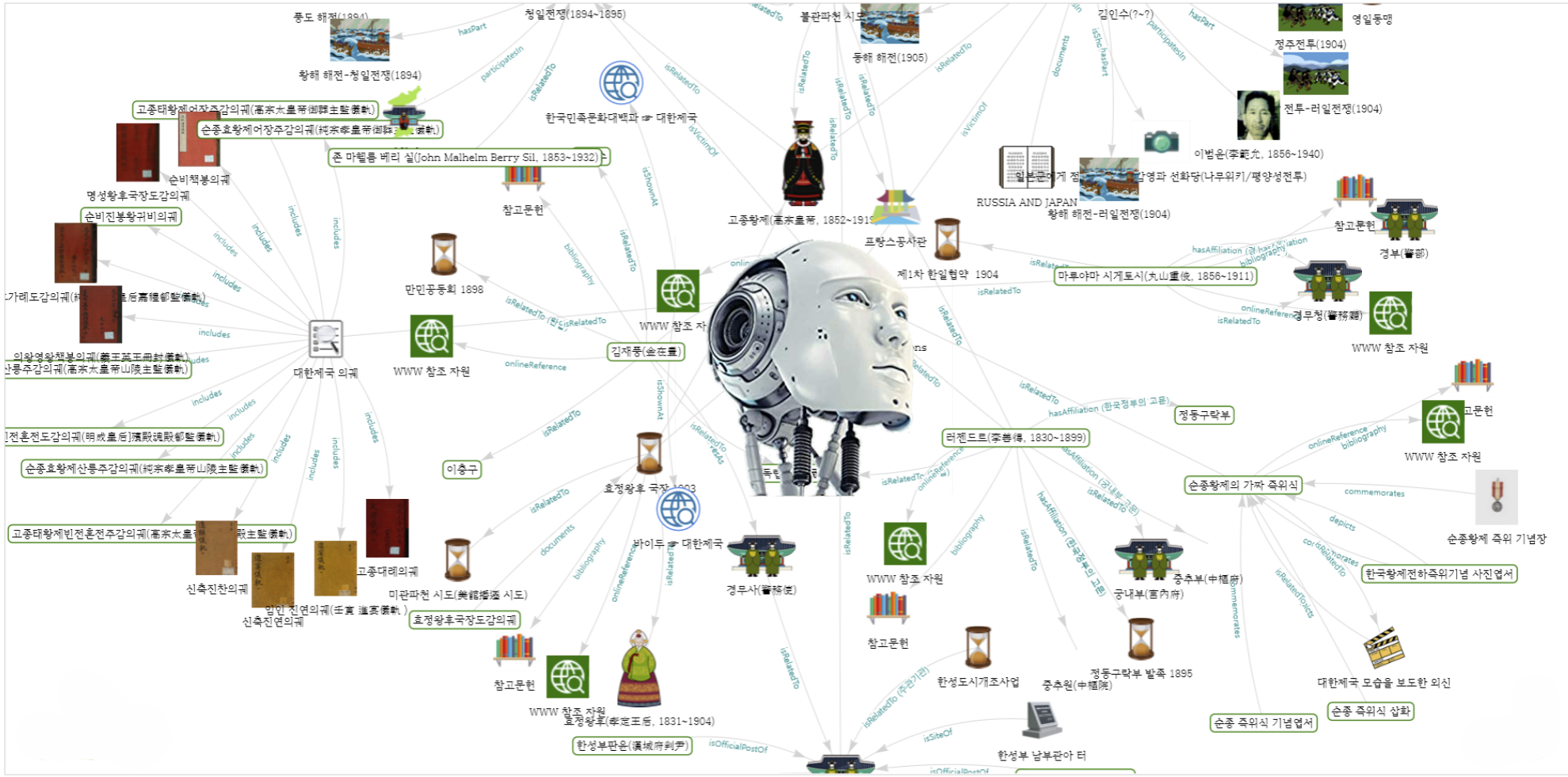
K-Heritage Interpreter

Familial Relationships of Historical Figures (Joseon Era)



디지털 큐레이션, 인공지능, 그리고 미래 인문학

- 인공지능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문학 공부의 동반자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성에 의해서 검증된 '명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기계적 심화학습(Deep Learning)의 내용과 방향성을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특정 분야의 정리된 지식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 또는 '주어진 지식'과 인공지능 스스로 습득한 지적능력을 균형적으로 융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미래의 인문학 교육과 연구, 그리고 인문지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문화적, 예술적 활동은 불가피하게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 '인공지능'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 디지털 큐레이션에 의한 시맨틱 데이터 생산은 인간의 언어 속에 모호하게 담겨있던 인문학 지식을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명시적인 데이터로 변환하는 일입니다.
- **인문지식의 디지털 큐레이션과 그 결과물을 축적한 백과사전 아카이브의 구현은 '인공지능'과 동행하는 '미래 인문학'을 위한 준비입니다.**



감사합니다.